

천세산업, 무동맥 정량펌프 KT마크 획득

정량펌프 전문 제조기업인 천세산업(대표 신호순)이 무동맥 정량펌프를 개발, 최근 한국기술산업진흥협회로부터 KT마크를 획득했다. 11월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정량펌프는 오페수 처리장이나 화학제품 공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펌프로 액체의 배출량을 조절해준다.

하지만, 액체를 일정량씩 주기적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배관 등에 반복적으로 동맥(충격)이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배관이 쉽게 노후해지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에어챔버를 달아야 했다.

그러나 천세산업의 무동맥 정량펌프는 헤드 2개를 이용해 액체를 연속적으로 배출,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줄였다.

외국산에 비해 충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5분의 1 수준이어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세산업은 1980년 설립됐으며 국내 정량펌프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매출액은 80억원을 기록했다. (02)717-0351

< Chemical Daily News 2002/ 09/ 19 >